

제주시·서귀포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시장 직선제 보완 없인 한계 분명... 문화도시·소통협력공간 조성 역점”

고희범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을 경우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시에는 예산권과 조례제정권이 없고 조직의 정원도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 세수에 대한 예산 자율편성권과 조례제정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체계개편위원회가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했지만 “예산과 인구 등을 감안할 경우 3개(동·서제주시, 서귀포) 행정시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현재



행정체계에 대해선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시를 폐지하고 대동제를 실시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만들었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도민 삶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분석해 보고 국제자유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시장은 “올해 역점 프로젝트인 제주시를 아름답고 품격있고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제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대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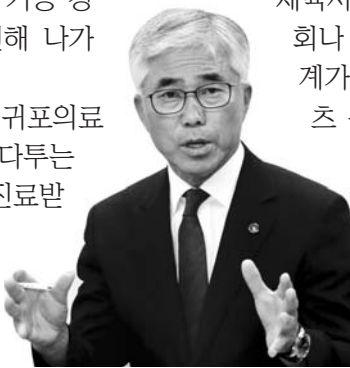
“의료원 기능 강화해 건강권 확보 제대병원 위탁 운영 반드시 실현”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21일 서귀포 지역의 미흡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4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선정돼 18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2021년까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시장은 “서귀포의료원은 그동안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없는 구조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왔다”며 “현재 서귀포의료원 운영



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이를 실현해 서귀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서귀포의료원측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위탁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예산과 고충 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귀포시민들이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시장은 “서귀포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이 미흡해 스포츠대회가 전지훈련단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5000석 이상의 종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2019 제주애 빠지다 ⑦ 와흘메밀마을



지난해 열린 향토음식체험 축제에서 와흘리 어르신들이 메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사진=와흘메밀마을 제공

‘제주 메밀’로 하나된 공동체

“메밀 우수성 알리자”... 모든 주민들 뜻 모아 마을 메밀밭에 체험 입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이주민·선주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 등도 활발

든 와흘에 살고 있다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와흘메밀마을은 마을 소유의 약 33만㎡의 메밀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메밀밭 자체 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지만 여기에 메밀밭답 쌓기, 음식 만들기, 생태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돼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2월 ‘와흘리 메밀마을 방문자센터’가 완공·운영되면서, 1회성 관광이 아닌 세미나, 숙박까지 가능한 ‘체류형 관광’으로 거듭났다.

아울러 마을의 어르신은 재능 기부로 ‘향토음식체험 축제’를 개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같은 마을에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지내던 주민들이 얼굴을 뜨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자정비 신화와 와흘 분향당, 생태연못, 와흘굴 등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익성 와흘메밀마을 사무장은 “와흘리는 각각의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은 와흘리에 살아도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메밀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간 유대관계도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흘메밀마을은 ‘제6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halla.com

대정읍 상·하모리 도시재생 사업 ‘속도’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 2022년까지 142억원 투입 최근 제출 주민의견 반영 계획안 조만간 승인 예상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안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하순에는 국토부에서 설명회도 마쳐 빠르면 9월쯤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해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국토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사업이 상·하모리 일대 15만㎡에서 2022년까지 142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선

정된 사업은 ▷공동체 통합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회복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공공기관 투자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최근 양윤경 시장이 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회장 임성우)와 함께 도시재생 추진될 현장을 찾았는데, 주민들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할 공간인 신영물 행복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영물 행복센터에는 202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지열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 사업을 통해 하모리 마을회관을 매입, 리모델링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대정몽생이센터와 청년 창업 공간인 대정특화체험센터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는 LH행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10월쯤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승인되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1인 월 10만원 이내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학

월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이 지원된다. 고대리기자

제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된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고대리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 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